

# 한중 소득주도성장·혁신성장 공동연구 출장 보고서

(18. 04. 05, KDI)

## I 출장 배경 및 목표

### 1. 출장 배경 및 목표

#### □ 연구 추진 배경

- 대통령 국민 방중 계기, 한중 재무장관간 회담(' 17.12.15일)에서 양국 경제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합의
- 이를 위해, 재정당국, 한국개발연구원(KDI), 중국 재정연구원(Chinese Academy of Fiscal Sciences)으로 공동연구 작업반을 구성하고, 조속히 연구 성과를 내기로 함
- 따라서 (1) 공급측면에서의 혁신 성장과 구조개혁 (2) 수요측면에서의 사람중심의 소득주도 성장 등 두 가지 핵심 정책 사안에 대하여 양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기로 합의함
- 위와 같은 공동연구는 한·중 양국의 각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연구팀이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, 한국측 연구수행은 한국개발연구원이 중국측 연구수행은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주관하도록 하였음

#### □ 한-중 공동연구팀 연구 구성 계획안

- 공급측면에서의 혁신성장과 구조개혁: 혁신성장과 구조개혁은 궁극적으로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, 이를 위해 경제 및 사회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함.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함

① 산업 및 경제 전반의 혁신 촉진 및 이를 통한 생산성 제고

- ② 혁신 생태계 및 인프라 구축
- ③ 혁신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개혁
- 수요측면에서의 소득주도 성장: 사회·경제적 양극화에 대처하고, 고용 및 소득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. 연구 중점은 다음과 같음
  - 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과제 및 방안
  - ② 주요 생활비 경감을 통한 소득-성장의 환류
  - ③ 취약 집단에 교육기회와 안정적인 소득원 제공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지속성장

□ 한-중 공동연구팀 조직 구성

- 공동연구는 한국 기획재정부와 중국 재무부가 주관하며, 양국의 대표 연구기관 (한국개발연구원 및 중국재정과학연구원)이 연구를 주관하고 작업반을 구성함
- 한국정부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며, 혁신성과 구조개혁은 정책조정국이, 소득주도성장 연구는 경제구조개혁국이 관리함. 한국개발연구원(KDI)은 기획재정부의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연구 전반을 담당하며, 전문 분야에 대한 다른 연구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
- 중국팀은 재무부에서 연구 전반을 관장·기획하며, 중국재정과학연구원이 연구업무를 수행함

□ 이번 출장은 위 공동연구를 개시하기에 앞서 연구진들 간의 착수 미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함

- 주요 사안 및 연구 주제에 대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, 주요 사안에 대한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협력할 계획임
- 현장 방문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해 정책권고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
- 연구 과정에서의 우선순위 설정 및 최종 결과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교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

## III 출장 개요 및 세부일정

### 1. 출장 개요

- 과제명: 「한중 소득주도성장·혁신성장 공동연구」
- 출장 장소: 중국 북경
  - 중관촌(中关村)
  - 칭화과기원
  - 하이텐웬 관리위원회 연구센터
  - 중국 재정과학연구소
- 출장기간: 2018년 3월 27일(화) ~ 2018년 3월 29일(목)

### 2. 세부 일정 및 방문자 명단

일자	주요일정(안)
3.27(화)	[오전] 김포공항 09:20 출발, 베이징공항(PEK) 10:30 도착
	[오후] 중관촌(中关村) 현장 방문: 관리청 면담 및 현장 답사
3.28(수)	[오후] 한중 소득주도성장·혁신성장 공동연구 착수회의
	[오후] 베이징공항(PEK) 21:25 출발, 인천공항 00:30 도착
3.29(목)	[오전] 베이징공항(PEK) 08:10 출발, 김포공항 11:30 도착

소속	성명	직위
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	서중해	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장
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	안상훈	선임연구위원
KDI 인적자원정책연구부	최경수	인적자원정책연구부장
KDI 금융경제연구부	구자현	부연구위원
KDI 산업서비스경제연구부	홍주원	연구원

### III 출장 주요내용

[1] <한중 소득주도성장·혁신성장 공동연구> 선포식 발표 및 토론 내용

(1) 소득주도성장 관련 논의 사항

- 한국과 중국의 경제구조 전환을 알아보기 위해 수입분배, 재부분배, 소비분배의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국가 간 비교할 계획
  - 1차 분배, 2차 분배, 3차 분배 정책들을 비교하며 분배 불평등이 초래하는 경제성장 에 대한 영향 기제를 검토하고, 분배와 경제성장 분야에서의 한중 양측의 진전을 평가하고자 함
  
- 공평성장 촉진에 있어 중국의 분배정책은 향후에 다음 네 가지로 나뉘질 것 이라 전망
  - 재정세무정책: 개인소득세, 부동산세, 사회보장(정산과 균형 원칙, 통합의 등급 향상, 공평의 지속가능), 기본 공공서비스의 균등화
  - 정밀화된 빈곤구제
  - 주민의 재산 소득비율의 향상: 자본시장의 개혁, 임직원의 지분보유, 주택 임대시장과 금융상품의 규범화
  - 공공자원수익을 공유하는 제도: 국유기업의 개혁, 국유자본의 수익 공유, 공공자원의 수익 분배, 업종독점을 타파

- 분배정책을 통한 공평성장 촉진에 있어 중국이 직면한 문제 및 원인을 분석
  - 도시와 농촌 주민 간의 소비차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이는 장기적인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됨
  - 분배정책이 아직 제한적이며, 주민소득에 대한 재분배 조정역할이 제한되어 있어 주민 소득 차이의 확대 추세를 억제하기 어려움
  - 세수제도의 불건전성으로 인해 세수의 조정 기능이 약화되며 주민소득 분배의 차이를 다시금 초래함. 더불어 사회보장제도가 제한적이라 소득분배에 대한 조정 역할이 효과적이지 않음
  - 주민소득의 분배 차이의 확대추세는 억제되었으나 소득 차이 문제는 여전히 몹시 심각하며, 주민재부분배 차이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확대된 것은 소득균등화 정책의 효과에 영향을 준 것이라 판단됨

□ 한국의 소득불평등, 양극화 및 중산층 붕괴의 원인 분석

- 1994년 전후로 소득분배 상황이 반전되며, 소득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수록 소득 성장률은 가속화되는 성장기제로 전환됨. 2008년 이후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된 원인은 이 시점을 전후로 도입된 단시간근로자 임금보호와 근로시간 규제 정책이라 판단됨
- 일자리 전략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. 2000년대엔 집단적 임금협상과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, 최근에는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시작함
- 최저임금제, 단체교섭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생산성 향상의 성과를 공정하게 공유하고, 균등한 기회를 창출하며, 지역간 이동성을 제고하고, 노동자 재배치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춤
- 공공지출을 효율화하고,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며, 조세 및 행정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정규직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추세임

(2) 혁신성장 관련 논의 사항

- 중국의 경우, 혁신에 의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체계가 정비되지 못하

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

- 정책 예시로는 중국의 산업성장정책체계, 지체한 금융혁신 관련 신정책 등이 있음

□ 미래 산업재편은 산업 경계의 파괴와 산업들 간의 융합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 전망

- 글로벌 IT기업이 빅데이터, 인공지능을 플랫폼화하며 타 산업으로의 진출을 확대함. 전통적인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해당산업 지식을 갖춘 기존 기업이 유리했지만,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확보한다면 신규 진입업체가 더 똑똑한 제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제품의 지능화 진전에 따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파괴됨. 제품이 스스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 경향이 가속화됨
- 기업의 선도적 혁신의 예로는 게임의 룰을 변화시키는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한 알리바바, 글로벌 가치사슬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발한 화웨이 등이 있음

□ 향후 노동집약적 산업이 자본집약적 산업으로 변신하며 규모의 경제가 증대할 것이라 전망

- 노동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음. 예시로, 로컬산업이던 택시업이 우버의 등장으로 글로벌 산업으로 변모함
- 자본집약적 산업에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감소하고, 무형자산(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 등)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유형자산의 비중이 큰 자본재 산업은 위기를 직면할 것으로 봄

□ 공유경제의 효과로 인해 제품 수요가 감소하면 고정비용 비중이 큰 자본집약적 제조업일수록 더 큰 경제적 곤경에 봉착할 것으로 보임

- 예시로 자동차산업에서는 서비스 중심 사업모델(BM)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비대면, 온디맨드,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중심으로 함

- 주행기술보다는 대중의 활동, 위치 정보를 확보한 기업이 경쟁우위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임
- 자동차 제조업, 운수업, 정비업, 보험업, 부동산업 등에서의 연쇄적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함

□ 창업기업(start-up)의 혁신 활성화를 위한 모험자본의 역할 분석

- 혁신가의 창업은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격 인하 및 제품의 다양성 확대를 유발함. 또한, 창업 기업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 강화 및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함
- 창업기업, 특히 신기술기업은 무형자산 중심의 담보부족, 불확실한 시장, 투자자에 대한 낮은 기술 이해도, 열악한 조직 체계 등으로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음
- 모험자본은 창업기업에 투자자금을 공급하는 가운데 법률, 세무, 마케팅 등 경영자문을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을 지원함
- 창업기업이 스케일업(scale-up) 하여 성장하기 위해서는 모험자본의 전문화 및 모험자본간의 연계 필요성이 증대됨
- 모험자본의 전문화는 특정 산업 또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전파를 통해 창업기업의 혁신성과 및 성공 가능성을 제고함
- 초기 창업기업 투자에 초점을 두는 엔젤투자자 또는 액셀러레이터와 상대적으로 중후기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야 함

□ 벤처캐피탈의 창업기업 혁신 효과를 분석, 규모별 모험자본의 특징을 고찰 및 연계 방안의 모색 필요성 강조

- 엔젤 또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은 성장 단계별 자금 공급, 공동투자, 투자연계, 벤처캐피탈에 대한 자금 공급 측면에서 보완 관계를 가짐
- 창업기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엔젤 또는 액셀러레이터 투자 이후 벤처캐피탈의 후속투자 유치가 중요하나, 국내 모험자본 생태계에서 두 모험자본의 연계성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

- 국내 대표적 모험자본인 벤처캐피탈의 기술혁신 효과를 분석할 계획. 창업기업 혁신에 벤처캐피탈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고자 함
- 엔젤 또는 액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과의 연계 활성화 또는 보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. 엔젤 또는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 친밀한 멘토링을 통해 초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벤처캐피탈은 스케일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

## [2] 중관촌 창업거리 답사 내용

- 중관촌은 현재 45개 입주기업을 가지고 있는 국영 인큐베이터를 운영
  - 규모, 자본, 인력 면에서 새로 시작한 창업 기업이 3개월 이내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에서 퇴출되는 추세임. 성과를 잘 내는 기업은 3개월 만에 15명 규모로 커지기도 함. 좋은 아이디어와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scale-up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판단됨
  - (기업 예시 1) 인공지능, 빅데이터 기반 사업의 직원이 북경으로 파견 나옴. 중국에는 작년 1월에 진출했으며, 본사(서울) 직원은 총 56명임. 중국진출을 통한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며,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시장성과 아이디어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중국 시장을 분석하고 있음. 한국 창업진흥원의 지원을 받고 나온 상태임
  - (기업 예시 2) Tiandian이라는 모바일결제 플랫폼 사업 직원이 북경으로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임. 중국 관광객이 한국 현지에서 WeChat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사용하는 플랫폼임. 가맹점은 4천여 개이며 월 매출은 10억 가량임. 현재 중국은 거의 알리페이 및 WeChat 페이를 사용하는 추세이며, 한국으로의 시장 확장을 목표로 함

## [3] 칭화과기원 및 하이텐웬 관리위원회 연구센터 방문 내용

- 칭화과기원은 창업자, 투자자, 법률 전문가, 지원기관 등이 모여있는 창업 생태계의 성공적인 예시로 평가됨
  - 이는 위치와 환경 덕분으로, 해당 지역에는 공공기관, 과학원 산하 연구소, 대학이 많고 매해 졸업하는 학생들도 다수임

- 과학기술의 상용화에 앞장선 지역으로, 중국에서 처음으로 국가차원의 신기술개발구를 내놓으며 정부 정책을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음
-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큰 것에 대한 부담감은 있다고 함. 예를 들어 북경 감량발전(불필요한 것은 발전하지 말라) 기조로 인해 창업 실험을 북경시내에서는 실시하지 못함
- 칭화대가 만든 인큐베이터라 청년창업이 주일 것으로 보이지만, 대학 졸업생이라 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는 않으며 실제로 대학 졸업생 보다는 석박사 졸업생들의 지원을 더욱 많이 하고 있음